**연중 제2주일(2018년 1월 14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소설가 마크 트웨인 아시죠? 소설 ‘탐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사회 풍자가죠. 마크 트웨인이 하루는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주 자랑삼아 하는 말이, 자기가 요즘 열심히 십계명을 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홀리 랜드 이스라엘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나위 산에 멋지게 딱 올라서서, 기분 좋게 아주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십계명을 외우겠노라고 잘난 척을 막 합니다.

가만히 듣더니, 마크 트웨인이 하는 말, “여보게 친구, 굳이 그 먼곳까지 가서 십계명을 외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집에서 그 십계명을 좀 지키면서 사는 것이 더 훌륭하지 않겠나?”

그냥 풍자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 내 집에서, 내 이웃들과 함께,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때,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찾아 멀리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사는 바로 이곳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쁘고 즐거웠던 연말 연시, 성탄시기 다 지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중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중 시기 동안 우리는 일상 생활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던지십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 합니다. 또 행복해 지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는 않지요. 이렇게 성당에 오셔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왜 여기에 왔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곳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보시오”하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믿음과 행동입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외가집 친척 사이였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됩니다.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천사의 잉태 예고를 받고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지, 여섯 달이 지나서, 마리아가 다시 천사의 잉태 예고를 듣고 갖게 된 아이가 예수였지요. 임신한 마리아가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서로 축복을 해주고 한동안 함께 지낸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는 외가집 친척이었습니다. 6촌이 되죠? 아마도,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세례자 요한이 성장하고 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 분이 누구신지 모른다.” 근데, 막상 메시아를 만나 보니까, 그게 글쎄 어려서 알고 지내던, 외종 친척 예수가 아닙니까? 보통 이럴때 사람들 반응이 어떤가요?

“야, 너야? 반갑다. 니가 메시아였어? 난 또 누구라고…” 실망 반, 환영 반, 놀람 반, 등등 미묘한 감정이 섞일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 예수를 보자 마자, 아무런 실망이나 놀람 없이 단 번에 믿고 고백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런 솔직 단순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또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과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해도,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냥 따릅니다. 불평 불만 없이, 실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조건 믿고 맡기고 따르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안되고,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납니다. 불평 불만 가득합니다. 화납니다. 하느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죠? 내 맘대로 하느님이 안 들어 주시니까.

성경에 전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요셉, 오늘 세례자 요한... 모두 자기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에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짜증내지 않고, 그냥 믿고 따릅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행동 보세요.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겸손하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자신의 모든 역할과 사명이 끝나죠. 무대 뒤로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데 어디 그렇게 합니까? 조용히 그냥 사라지라고 하면 난리납니다. 내가 그동안 해 온것이 있는데, 날 뭘로 보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냐고...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난리납니다.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필요한 내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하고, 때가 되면 아무 보상이나 칭찬 없이도 그냥 겸손하게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를 몰라주고 인정 안해주면 자존심 상하고 몹시 괴롭죠.

내려온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고, 무시 당하는 것이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싫습니다. 너무 잘나서 밑으로 내려가기가 싫죠? 그래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사라질 때 사라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지 못하니까 살면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굿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살아 볼까요. “남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 아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올케, 시누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며느리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하는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참 평화로울 겁니다. 그러면 내 가정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이런 믿음과 겸손의 마음에 하늘 나라의 행복이 열립니다.

여기서 오늘 복음의 중요한 사실이 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묵고 있는지 보고 싶어하죠. 예수님의 말씀. “와서 보아라.” “와서 봐!”하는 이 말은 자신감이 강할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 확신을 지니지 못한 사람,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앞뒤가 잘 안맞는 사람, 뒤가 구린 사람,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건넬 수 없는 말이 “와서 보아라”입니다.

요즘 제가 이 체리힐 지역에 새로 등장한 신부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가든, 식당에 가든, 밤에 술을 마시러 가든,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닙니다. 여기 체리힐 동네에도 목사님 말고 신부도 있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곳 저곳 행사에도 많이 따라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답니다. 요즘 체리힐에 새로 온 그 신부 어때? 괜찮아? 강론은 잘 한대? 나이는 몇이래? 어떻게 생겼대? 저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일단 한 번 와봐! 성당에.”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로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까지 따라가서, 그 분과 함께 묵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일거수 일투족과 그분의 실체를 아주 가까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가서 봤더니, 이 양반, 집도 없고, 묵고 있는 거처도 없이 그냥 떠돌이 입니다. 당시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라삐’는 자기 학당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학식과 견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죠.

글쎄, ‘선생님’하고 따라가서 보니까, 이건 웬걸, 떠돌이에 부랑아 같은 모습에, 근거나 배경도 알 수 없는, 학교라고는 다닌 적도 없는, 말하자면 ‘돌팔이 선생’ 이었던 거죠. 볼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이 제자 둘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인간 됨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하느님 나라, 즉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과 진리를 발견합니다. 놀라운 감동과 환희...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보았다면 볼 것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글쎄, 가봤더니 볼 것 하나도 없어! 메시아는 무슨 얼어 죽을 메시아.”

그런데 이들은 희망과 자신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다니... 그것도 우연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서히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너는 이제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정말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출신, 곧 과거를 꿰뚫어 보는 말이고, ‘시몬’은 베드로의 현재 이름입니다. 그리고 ‘케파’는 베드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케파라 불릴 것이다”고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진짜로 참말로 그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분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이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은 그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따를 것입니다.

살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면,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고백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는 믿음과,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질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은 세상에 구세주를 모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와서, 보아라.” 겸손과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를, 참된 행복을,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보러 함께 가십시다!